

잡학서고 지식의 기록

땅이 꺼져 만든 거대한 솥, 칼데라(Caldera)

원문 주소

<https://www.gklibrarykor.com/10093/>

PDF 미리보기 ·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천지를 사진으로 보면, 높은 산 위에 어떻게 저렇게 넓고 둥근 호수가 생겼는지 궁금해집니다. 화산이 불을 뿜고 난 자리라고 하니 분화구에 물이 고인 것 같지만, 사실 천지의 바탕이 된 지형은 보통의 분화구와 만들어진 방식이 다릅니다. 땅 위로 무언가가 터져 나간 자국이 아니라, 땅 자체가 아래로 꺼져 내려앉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형을 ‘칼데라(Caldera)’라고 부릅니다. 칼데라란 쉽게 말해 ‘화산이 땅속 마그마를 한꺼번에 많이 내보낸 뒤, 비어 버린 마그마 방 위의 땅이 무너져 내려 생긴 크고 둥근 분지’를 의미합니다. 지름이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기도 하며, 그 안에 물이 고이면 칼데라호라는 아름다운 호수가 됩니다. 본 자료에서는 칼데라가 무엇이고 분화구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칼데라가 만들어지는 과정, 세계의 대표적인 칼데라, 그리고 칼데라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과 위험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땅이 꺼져 만든 거대한 솥, 칼데라 칼데라는 분화구와 어떻게 다를까 칼데라와 분화구는 모두 화산 위의 움푹한 지형이지만, 생긴 원리와 크기가 다릅니다. (1) 이름에 담긴 뜻칼데라는 ‘솥’이나 ‘가마솥’을 뜻하는 스페